도심 속 문화 소풍, '중마교역소 토요피크닉' 계속된다

클래식·국악·타악 공연에 레크리에이션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구성

광양시민의 주말을 특별하게 수놓은 문화 프로그램 '중마교역소 토요피크닉'이 6월에도 계속된다.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오는 6월 28일(토) 마동저수지생태공원 내 중마교역소 잔디공원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토요피크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마교역소는 (사)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소속 5개 기업이 무상 기증한 산업용 컨테이너를 '아트 컨테이너'로 재탄생시켜 조성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2023년 8월 9일 개관했으며, 현재는 특색 있는 3개 동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무상 전시와 시민 대관에 이어, 올해는 '토요피크닉', '시민클럽' 등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되며 광양시의 문화도시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다.

'토요피크닉'은 마동생태공원 내 중마교역소를 지역 문화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피크닉 같은 여유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5월 두 차례 진행된 행사에서는 전래놀이 체험, 클래식 및 퓨전국악 공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청년층,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도심 속 여유로운 문화 소풍을 만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월 '토요피크닉'은 한층 다채로운 구성으로 시민을 맞이한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감성 공연팀 '그대-LOW'와 장구와 꽹과리로 흥을 더하는 타악 퍼포먼스 팀 '두들소리'가 무대에 올라 정적인 아름다움과 역동적인 리듬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선보이며, 이와 함께 다양한 게임 등 레크리에이션도 마련돼 도심 속 여유로운 주말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마동저수지생태공원은 일상 속 쉼과 활력을 제공하는 최적의 장소로, 가벼운 차림과 간단한 먹거리만 챙기면 누구나 완벽한 소풍을 즐길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토요피크닉'은 7월 28일(토)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중마교역소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양문화도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후 참여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문화도시센터(☎ 061-761-0701,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52, 2층)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추억의 동화'로 만나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찐이 3기·전국 경연 퍼레이드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구는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충장축제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태욱 총감독은 올해 충장축제는 '추억의 동화-동화처럼 행복한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충장로만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축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성 관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기획·제작·운영해 '진정한 시민 축제'로 도약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축제 참여자와 관람객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추억의 동화' 테마로 공간 스토리텔링 구현

올해 축제의 핵심 테마인 '추억의 동화'는 금남로라는 공간이 가진 고유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어릴 적 추억 속 동화, 사랑과 모험, 소망과 상상이 가득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판타지가 가득한 축제 속에서 새로운 동화를 써내려 간다'는 모토 아래, 금남로 전체를 하나의 동화마당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금남로의 각 구간은 서로 다른 동화 속 공간으로 연출되며, 시민들은 거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 공간이 아닌, 금남로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공간 스토리텔링의 구현이다.

특히 금남로가 가진 '추억과 향수'라는 정서적 가치를 '동화'라는 보편적 코드와 결합시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남로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감성과 추억이 살아 숨 쉬는 문화적 장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찐이 3기, 기획 프로그램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의 수동적 관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축제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축제를 함께 만들어 갈 핵심 시민 참여자인 '청년기획단 찐이 3기'를 이달 22일까지 모집 중이다. 찐이들은 축제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축제를 만들어 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축제 기간 중 현장 운영은 물론,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에 직접 참여한다.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시민 기획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개인이나 단체, 동아리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기획안은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축제에 직접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충장 퍼레이드 및 전국 경연 퍼레이드

'추억의 동화' 테마에 맞춘 충장 퍼레이드와 전국 각지의 퍼레이드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연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충장 퍼레이드는 주민들이 직접 동화 속 캐릭터로 분장해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퍼레이드로, 관내 13개 행정동 주민들이 만든 다양한 동화 캐릭터들이 금남로를 가득 메울 예정이다. 전국 경연 퍼레이드에서는 퍼레이드팀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퍼레이드 경연을 벌이며, 축제의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대학 참여 콘텐츠 확대 ▲빛의 방울 굴리기 참여자 모집 ▲충장 주먹밥 경연대회 ▲마스크 파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든 연령대와 취향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혜정 기자

곡성군,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6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6월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목사동면 들말센터, 옥과면 월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전했다.

오는 25일에 추진하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추진되며, 주민이 함께 보는 공동체 영화"괜찮아, 앨리스"를 관람할 예정이다. 성적에 대한 압박과 부모와의 갈등, 교우관계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학생들이 갇힌 교실에서 벗어나 1년간 청소년들의 복잡한 감정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며, 영화 상영 후 양지혜 감독과 제작자 오연호 대표(오마이뉴스)와 함께 관객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6월 마지막 주인 6월 27일과 28일에도 각각의 문화배달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27일에는 목사동면 들말센터에서"추억의 유랑다방"을 공연한다. "나의 살던 고향, 그리고 부모님"을 주제로 1940년대와 50년대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 삶을 지켜주었던 그 시절의 아름다운 음악들을 아코디언 연주와 트로트 가수 김수련의 노래로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28일에는 옥과면 월파관에서 "모던 국악"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무대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감각적인 구성으로 전통 국악기의 깊은 울림에 현대적 감성과 장르적 해석을 더해 국악의 확장성과 대중성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악기로 재편곡한'The Children of Sanchez'와 영화『왕의 남자』OST'인연'의 판소리 재구성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음악 세계를 펼친다.

한편, 문화가 있는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곡성군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곡성군/이정수 기자

광주시, '임방울국악상' 전국 공모한다

6월30일~7월11일 접수… 본상·특별상 1명씩 8월 중 최종 선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문화예술상 국악 부문인 '2025 임방울국악상' 수상 후보자를 7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임방울국악상은 광주 출신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국악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국이며, 본상 1명과 특별상 1명을 선정한다. 본상은 판소리 등 국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인물, 특별상은 국악 분야에서 장래가 유망한 45세 이하인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 ▲임방울국악상 운영위원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추천서류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nbg04@korea.kr),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받는다.

제출서류는 공적조서, 이력서, 공적 증빙자료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광주시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거친 뒤 '광주광역시임방울국악상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8월 중 최종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올해 9월 열리는 제33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전야제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2026년 공연 및 음반 제작 등 창작활동비 지원과 시 주관행사 초청 등으로 예우한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국창 임방울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해 국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을 발굴하고자 한다"며 "국악계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